

# 광주-무안공항 통합 로드맵 만든다

## 광주시, 광주전남연구원에 민간공항이전 방안 연구 의뢰 상반기 밑그림 나올 듯 ... 민관 협의체 만들어 본격 논의

광주시가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로드맵 작성을 광주전남연구원에 올 해 수시과제로 의뢰할 방침이다. 수시과제가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는 공항 통합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조만간 광주전남연구원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안 연구를 수시과제로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방식, 절차, 일정 등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 민간공항 통합 작업의 첫걸음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광주공항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재영 전남지사가 이를 받아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광주시의 반응인 셈이다.

시는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광주시, 전남도,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음해 운항 스케줄까지 미리 고려해야 하는 항공사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광주공항 국내선을 옮긴다는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절차가 시작되면 광주와 전남의 민간공항 통합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6·13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호남권 국제공항인 무안공항 활성화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공항 통합은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하

겠다고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더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공항 통합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6월 후 전남도 실·국장 토론회에서 “광주시장의 진일보한 판단이 선전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시·도 상생 차원의 적극적인 이전 로드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특히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된 뒤 우회 노선과 1조원 이상 추가된 비용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불식하려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서둘러야 하는 처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공항 전경.



무안공항 전경.

##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문 연다

### 다음달 상무지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문을 연다.

광주시는 10일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고,건강·금융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2월초 상무지구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며, 광주가 두 번째다.

광주시는 쉼터 운영에 앞서 지난해 실태조사, 현장체험, 토론회 등을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는 약 4000명으로 평균 연령은 51

세, 전업 종사자는 81%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대기 중에는 추위와 더위는 물론 생리적인 현상조차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쉼터는 대리운전기사가 밀집한 상무지구에 132㎡ 규모로 조성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월~토요일)다. 쉼터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이동노동자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안마의자, 발바사지기, 교육·회의실, 휴식공간, 상담실, 탕비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상시인력 2명을 1일 2교대로 배치해 쉼터 이용자를 지원하고, 낮에는 노동·법률상담 및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협조해 건강, 금융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동센터로 활용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봄 가뭄 대비 저수지 물 채우기 나서

### 저수율 낮은 254곳 대상

올 봄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가 대대적으로 저수지 물 채우기에 나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강수량은 878mm로 평년(1443mm)의 60.8%에 그쳤다. 이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57.5%에 불과해 평년(71.0%)보다 13.5%포인트 낮았다.

여기에 기상청은 올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고 예보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기상가뭄 3개월 전망”에서 고흥·장흥·강진·완도군에 ‘주의’ 단계를 예보했다. 환경부도 ‘생활 및 농업용수 가뭄 3개월 전망’에서 완도군은 ‘심함’ 단계, 목포·여수·순천·나주·담양·고흥·보성·화순·함평·영광·장성 등 11개 시군은 ‘주의’ 단계를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봄 영농기를 대비

해 하천, 배수로, 가물막이, 하상 굴착, 관정양수 등을 이용한 물 채우기를 가뭄 발생 피해지역 및 저수율이 낮은 22개 시·군 254개소 저수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광 불갑저수지는 영농기가 끝난 지난 12월부터 하루 4000t씩 하천수를 이용한 물채우기로 저수율 64.7%(평년대비 89%)을 확보했고, 진도 둔전저수지도 하루 1200t씩 배수로로 이용한 물채우기로 저수율 67.6%(평년대비 92%)까지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종화 전남도 농업축산식품국장은 “상습가뭄이 발생하거나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저수지 물 채우기를 통해 올 봄 영농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도 주민들에게 가뭄 대비 물 모으기에 적극 동참토록 지도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문화전당 국제교류 협력사업 탄력 받는다

### 공적개발원조사업 예산 8억

### 국제 레지던시 34억 반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문화를 토대로 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예산이 처음 반영됐고 국제 레지던시 예산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10일 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인 ODA 사업 예산 8억5000만원을 확보해 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문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ODA 사업은 아시아 저개발국 문화 다양성 보존과 문화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등 3개 부처가 참여하는 융합사업이다.

올해는 미얀마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별 실태 조사를 통해 문화 지원 활용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미얀마는 소수민족이 다양한 지역마다 어떤 문화가 분포돼 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전당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을 활용해 문화지원

을 콘텐츠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내의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를 위한 입주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레지던시 육성사업에도 3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8억2000만원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액수다.

지난해 3개 분야 6종 사업에 66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개 분야 7종에 200여 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레지던시 육성사업은 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 국제 전문가가 체류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제적창·제작 기관 육성과 아시아 개발대상국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이다.

올해는 아시아 문화예술 방문연구,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연 레지던시, 무용·전통음악 등 아시아 커뮤니티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한다.

방선구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올해 각종 이 사업들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창작공간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아시아 현대 예술 활동을 지원해 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박병규 신임 경제부시장 “광주형일자리 상반기 결실”

광주시 박병규 신임 경제부시장은 10일 “현재 대기업과 광주형일자리 도입한 광주 현지 투자를 논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후 시청 기자회견을 찾은 박 부시장은 “광주형일자리 현재 결실을 볼 만한 단계에 근접해 있다”며 “대기업군의 기업과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만한 한 두 군데 기업과 광주형일자리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박 부시장은 “광주가 타시도와 비교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광주형일자리라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대기업 중심 고임금·저효율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광주형일자리로 이를 개선해야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모든 시군에 연말까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전남 모든 시·군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기존 측정소 10곳에다가 지난해 11곳이 설치됐으며 올해 10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22개 시·군에 37개, 중급측 측정망까지 포함하면 모두 40개 대기오염측정소가 운영된다.

연구원은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 중인 9개 시·군에 대해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 사용법 등 기술 지원에 들어갔다.

이해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모든 시·군에 측정소가 구축되면 미세먼지 등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민주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진상조사단 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당원 관리 책임자 전원을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0일 “정상적인 당원관리 시스템에서 당원명부 유출은 불가능하다”며 “당원관리 책임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장 사무처장, 8개 지역위원회 당원관리 책임자, 지난해 12월 말 당직을 그만둔 전 시장 조직국장 등이다. 진상조사단장은 김철수 변호사가

맡는다. 또 김나운 변호사, 김병권 디지털소통위원장, 이재종 시장 정책미디어실장 등도 조사단에 포함됐다.

시장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사단을 구성한 만큼 원칙대로 명부 유출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8일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해 중앙당 사무부총장과 중앙당 조직위원회 당원관리 책임자, 지난해 12월 말 당직을 그만둔 전 시장 조직국장 등 4명 자료를 살펴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 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차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유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